

# 전남도·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빛났다

### 지난해 1197억 달해... '의무 5%' 보다 높은 12.42% 차지 지난달 공공구매 설명회...기업 제품 소개·우수 사례 공유

전남도가 2023년 전체 물품 구매액의 12.42%인 855억원 상당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구매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교육청의 342억원과 합치면 모두 1197억원 어치로, 전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이틀간 동부청사와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2024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설명회'를 열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수구매 동참을 당부했다.

설명회에는 도 관계부서,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를 비롯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도 출자·출연기

관, 산단 기업체 담당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이는 실질적 공공구매 성과가 나타나도록 각 기관의 회계·계약 업무 담당자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도 우수구매 독려를 통해, 지난해보다 700명 이상 추가 참석한 규모다.

행사는 공공구매 제도 이해를 위한 강의를 비롯해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전남지역 우수 기업 제품 소개, 공공구매 우수사례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매출 신장을 위해 지난 2016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

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교육청도 2017년 '전라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21년부터는 매년 물품·용역 구매액의 5%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공공기관과 시·군, 각급 학교에 지속해서 독려하는 등 공공구매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기업의 매출 신장 외에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분배와 양극화 해소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제품의 유통 환경 개선과 품질 관리에도 힘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공공구매 성과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못줄 띄워 한줌 한줌... 옛방식 모내기 체험하세요

전남농업박물관, 15일 체험행사  
14일까지 선착순 100명 모집  
무형유산 '진도 복놀이' 공연도

전남도농업박물관이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통 모내기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박물관 농업테마공원 다랑이 논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 농경문화 전승과 농업의 소중함

을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 방식대로 모판에서 모를 썬 는 중간에 던져놓고 참여자가 무논에 못줄을 띄워 손으로 직접 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모내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도 복놀이 공연단이 신명나는 춤과 가락으로 흥을 돋우고 각종 민요와 풍물놀이 등도 선보인다.

또 모내기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별씨를 받아서켜 모를 만들고 모내기를 한 뒤 벼가 자라 수확할 때까지의 자세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모시기가 끝나면 농업박물관이 미리 준비한 못밥을 먹으며 전통 모내기 체험을 마무리하게 된다.

참가자는 오는 14일까지 선착순(100명 내외)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자는 발을 보호하기 위한 장화나 양말, 모자, 여벌옷, 수건 등을 준비해야 한다.

김옥경 농업박물관장은 "이번 전통 모내기뿐만 아니라, 가을에 벼 수확 체험도 옛 방식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신청

14일까지...최대 5억 지원

전남도가 2025년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참여할 농업경영체를 오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가루쌀 재배단지 사업 신청조건은 가루쌀 재배를 30ha이상 확보할 계획이 있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다. 단지 공동운영과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상

담 비용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가루쌀 재배면적을 6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는 단지는 공동육묘장, 트랙터, 콤팩트 등 가루쌀 생산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에 선발된 단지에는 ▲종자(바로미2) 유상 공급 ▲단지별 맞춤형 생산기술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가루쌀 단작 시 ha당 200만 원, 밀·조식료와

이모작 시 ha당 350만 원)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등에 지원이 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가루쌀이 밀가루를 대체할 경우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다"며 "정부에서 가루쌀 생산량 전량을 매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식품소재로 개발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루쌀은 밥쌀과 달리 식품가공 원료로써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빵·이유식 등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쌀로,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유기농 1번지' 전남 위상 높였다

경진대회서 곡성 백세미 작목반 '대통령상'·장흥 천관쌀 '장관상'

전남도는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유기농업협회가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곡성 석곡농협 백세미 작목반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 유기농 식품 경진대회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3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박람회에서 진행됐다.

시상은 곡류·과일·채소·가공품 4개 부문에 총 24점(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농식품부장관상 5점 등)이 이뤄졌다. 곡류는 등급, 단백질 함량, 색, 윤기, 친환경인증 기간 및 면적 등을, 과일류는 당도, 모양, 향기, 식미감, 친환경인증 기간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남은 곡류(백미) 분야 31개 출품작 중 곡성

석곡농협 백세미 작목반이 대통령상을, 장흥 이지현 농가(천관쌀)가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곡성 석곡농협 백세미 작목반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쌀로 인정받게 돼 무척 기쁘다"며 "우리 지역의 소득향상은 물론 친환경 곡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물을 선별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유기농 1번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품질향상 및 품목 다양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수산물 수출단지 목표 대양산단에 조성

도, 2025년까지 1137억 투입...가공공장·연구개발·창고 등

전남 수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전진 기지가 목표 대양산단에 조성된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으로, 11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목포 대양산단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식품 수출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수출단지는 지상 5층 규모로 수산식품 임대형 가공공장, 국제 마린김 거류소, 연구개발시설, 냉동·물류창고 등을 갖춘다.

전남도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으로 전남 수산물에 대한 가공·수출 체계를 구축,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김 2억 2000만 달러, 전복 50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글로벌 수산물 시장에서 큰 성장세

를 유지하고 있다.

임대형 가공공장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갖춘 가공공장 36개소를 구축하고 R&D 연구센터는 가공식품 공동 개발, 성분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제품 개발로 기업을 지원한다.

국제 마린김 거류소는 마린김 구매를 위해 국내외 바이어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운영한다. 국제적 김 가격 경쟁력 향상과 김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통해 전남 수산식품을 고차 가공산업으로 육성, 돈 버는 어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전남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능력 강화

도·시·군 위생 및 감염병 부서 합동 모의훈련

전남도가 지난달 31일 나주시 소재 산업체에 도·시·군 위생부서, 감염병 부서와 합동으로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업체 급식으로 다수 인원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상황을 가정하고, 산업체 관계자, 도·시·군 신속대응반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 ▲식중독 발생 상황 보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전파 및 현장출동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실시 ▲급식시설 소독 및 조리종사

자 교육 ▲식중독 사후 조치 및 대책 회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시 환경·인체 검체 채취 요령과 원인 역학조사 방법 등에 대한 훈련을 중점 추진했다. 또 전남도와 시·군, 기업체는 훈련을 통해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여름철 급식관리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해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